

버섯류 수출 확대를 위한 시장조사(호주 · 미국)

2022.12

[목 차]

I. 배경	<u>1</u>
1. 전 세계 버섯 시장규모	<u>1</u>
2. 우리나라 버섯 시장현황	<u>2</u>
II. 미국 버섯 시장현황	<u>6</u>
1. 생산 및 수입현황	<u>6</u>
2. 소비현황	<u>9</u>
3. 유통현황	<u>12</u>
III. 호주 버섯 시장현황	<u>14</u>
1. 생산 및 수입현황	<u>14</u>
2. 소비현황	<u>16</u>
3. 유통현황	<u>19</u>
IV. 요약	<u>21</u>
1. 대한민국 생산·수출현황	<u>21</u>
2. 조사국별 비교	<u>22</u>

버섯류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조사(호주 · 미국)

1.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버섯 생산량은 전년 대비 5.0% 감소한 15만 839톤으로 집계

- 품목별 비중은 새송이버섯(33.1%), 느타리버섯(31.2%), 팽이버섯(17.9%) 순
- * 동년 버섯 수출액은 전년 대비 8.2% 감소한 4,451만 5,000달러(한화 약 580억 4,756만 원)로 집계
- * 주요 수출국은 미국(22.1%), 네덜란드(19.0%), 호주(18.0%) 순
- * 주요 수출품목은 새송이버섯(59.5%), 팽이버섯(32.4%) 순

2. 2021년 미국의 버섯 수입액은 전년 대비 17.6% 증가한 4억 981만 5,000달러(한화 약 127억 9,876만 원)로 집계

- 주요 수입국은 캐나다(72.7%), 이탈리아(4.4%), 대한민국(3.0%) 순
- * 주요 수입품목은 양송이버섯(85.0%), 기타버섯(15.0%) 순
- * 한국산 새송이버섯과 팽이버섯은 동아시아 식문화와 채식을 지향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인지도 형성
- * 한국산 팽이버섯을 섭취한 후 식중독에 감염되었다는 현지 보도 후, 2022년 12월 현재 한국산 팽이버섯 대상으로 전국 수입경보가 발령됨
- * 자국산 버섯은 주로 양송이버섯이 유통되며, 캐나다산 버섯은 양송이·표고·새송이·팽이버섯이 유통되고 한국산 버섯은 주로 새송이·팽이버섯이 유통됨

3. 2021년 호주의 버섯 수입액은 전년 대비 10.6% 증가한 1,048만 7,000달러(한화 약 136억 7,714만 원)로 집계

- 주요 수입국은 대한민국(78.8%), 중국(17.1%) 순
- * 주요 수입품목은 기타버섯(99.8%), 양송이버섯(0.2%) 순
- * 한국산 새송이버섯과 팽이버섯은 이국적인 식재료로 인식되며, 동아시아 식문화와 채식을 지향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인지도 형성
- * 지속가능한 식단·건강한 음식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며, 육류를 대체할 수 있고, 건강에 좋은 버섯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며 버섯이 현지 매체에 의해 2022년 식품 트렌드로 선정되기도 함
- * 자국산 버섯은 주로 양송이버섯이 유통되며, 한국산 버섯은 새송이·팽이버섯이 유통되고, 중국산 버섯은 주로 팽이버섯이 유통됨

I. 배경

1. 전 세계 버섯 시장규모

□ 2020년 기준 전 세계의 버섯의 생산가치는 452억 67만 8,000달러(한화 약 58조 9,597억 원)¹⁾로, 전년 대비 8.2%, 최근 5년간 연평균 1.2% 증가함

- 각종 식품 매체에서 버섯이 슈퍼푸드로 소개되고, 식물성 식단이 식품 트렌드로 부상하며 버섯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생산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
 - 버섯 재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증가하며 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한 것이 생산가치 증가에 영향을 미침
 - 또한, 버섯으로 동물성 단백질 식품을 대체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항산화 기능과 같은 건강상의 이점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며 소비 수요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침

<표 I -1> 전 세계 버섯 생산가치 추이(2016~2020)

(단위: 천 달러, %)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43,120,200	36,723,202	38,815,053	41,784,491	45,200,678	8.2	1.2

*주: 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최신자료(2020)로 작성

*출처: FAO(유엔식량농업기구, fao.org)

1) 2022년 12월 13일자 환율 적용(1USD = 1,302.90KRW)

2. 우리나라 버섯 시장현황

가. 생산현황

□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버섯 생산량은 전년 대비 5.0%, 최근 7년간 연평균 2.9% 감소한 15만 839톤으로 집계

- 주요 산지는 경상북도(25.4%), 경기도(23.4%), 충청남도(11.8%), 전라남도(11.4%), 충청북도(10.9%), 경상남도(10.8%) 순
 - 생산량 비중 1, 2위인 경상북도, 경기도에서 전체 생산량의 48.8%를 재배
- 이상기후로 인해 2021년 충청남도의 버섯 생산량이 전년 대비 38.5% 감소함

<표 1 -2> 우리나라 지역별 버섯류 생산량(2015~2021)

(단위: 톤, %)

구분	2015	2018	2020	2021	비중 (2021)	전년비 (20/21)	연평균 (15/21)	
합계(전국)	180,365	174,751	158,747	150,839	100.0	△5.0	△2.9	
1	경상북도	46,530	40,581	39,015	38,353	25.4	△1.7	△3.2
2	경기도	49,098	31,179	34,670	35,279	23.4	1.8	△5.4
3	충청남도	21,220	22,132	29,058	17,873	11.8	△38.5	△2.8
4	전라남도	24,541	18,185	16,085	17,200	11.4	6.9	△5.8
5	충청북도	13,154	34,590	15,007	16,503	10.9	10.0	3.9
6	경상남도	14,864	18,549	16,274	16,239	10.8	△0.2	1.5
7	전라북도	4,549	3,345	3,905	4,820	3.2	23.4	1.0
8	강원도	3,577	3,551	2,889	2,960	2.0	2.5	△3.1
9	광주광역시	563	580	540	540	0.4	0.0	△0.7
10	대구광역시	818	714	311	344	0.2	10.6	△13.4
11	대전광역시	542	575	563	207	0.1	△63.2	△14.8
12	제주특별자치도	338	278	153	167	0.1	9.2	△11.1
13	인천광역시	108	77	89	164	0.1	84.3	7.2
14	세종특별자치시	183	238	157	149	0.1	△5.1	△3.4
15	부산광역시	166	169	15	25	0.0	66.7	△27.1
16	울산광역시	114	8	16	16	0.0	0.0	△27.9
17	서울특별시	0	0	0	0	0.0	N/A	N/A

*주1: 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버섯류(느타리, 상항, 새송이, 신령, 양송이, 영지, 팽이, 표고(건·생표고)) 생산량을 기준으로 작성

*주2: 특용작물생산현황 통계에서 제공하는 최신 통계자료의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

*출처: 통계청(kosis.kr) > 특용작물생산현황(2022.12.09.), 임산물생산조사(2022.12.09.)

□ 2021년 기준 품목별 버섯 생산 비중은 새송이버섯(33.1%), 느타리버섯(31.2%), 팽이버섯(17.9%) 순으로 집계

- 동년 점유율 1위 품목인 새송이버섯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4만 9,897톤으로 집계
- 동년 점유율 2위 품목인 느타리버섯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지만, 최근 7년간 연평균 4.6% 감소한 4만 7,084톤으로 집계
- 동년 점유율 3위 품목인 팽이버섯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3.5% 증가했지만, 최근 7년간 연평균 5.3% 감소한 2만 7,038톤으로 집계
- 동년 점유율 5위 품목인 양송이버섯(6.1%)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54.8% 급감함
 - 양송이버섯의 주요 산지인 충청도²⁾가 2021년 역대 최대 연평균 기온을 기록하는 등, 이상기온으로 인해 온도에 민감한 양송이버섯의 생산에 차질을 빚었을 것으로 추정

<표 I -3> 우리나라 버섯 품종별 생산량 추이(2016~2020)

(단위: 톤, %)

구분	2015	2018	2020	2021	비중	전년비 (20/21)	연평균 (15/21)
합계	180,365	151,111	158,747	150,839	100.0	△5.0	△2.9
1. 새송이버섯	46,531	49,137	47,766	49,897	33.1	4.5	1.2
2. 느타리버섯	62,402	39,677	45,726	47,084	31.2	3.0	△4.6
3. 팽이버섯	37,554	28,533	26,128	27,038	17.9	3.5	△5.3
4. 표고버섯	23,816	22,255	18,468	17,371	11.5	△5.9	△5.1
5. 양송이버섯	9,732	11,347	20,493	9,258	6.1	△54.8	△0.8
6. 영지버섯	140	78	80	103	0.1	28.8	△5.0
7. 상황버섯	176	86	84	83	0.1	△1.2	△11.8
8. 신령버섯	12	0	1	5	0.0	400.0	△13.6

*주1: 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버섯류(느타리, 상황, 새송이, 신령, 양송이, 영지, 팽이, 표고(건·생표고)) 생산량을 기준으로 작성

*주2: 특용작물생산현황 통계에서 제공하는 최신 통계자료의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

*출처: 통계청(kosis.kr) > 특용작물생산현황(2022.12.09.), 임산물생산조사(2022.12.09.)

2) 양송이버섯의 지역생산비중: 충청(94.0%), 영남(5.8%), 호남(0.2%) (농업관측센터 버섯 관측보, 2021.03)

나. 수출현황

- 2021년 대한민국의 버섯 수출액은 전년 대비 8.2% 감소한 4,451만 5,000달러(한화 약 580억 6,536만 원)로 집계
 - 동년 주요 수출품목은 새송이버섯과 팽이버섯으로, 각각 전체 수출액의 59.5%, 32.4%를 차지
 - 동년 수출액 1위 품목인 새송이버섯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2,650만 1,000달러(한화 약 345억 5,730만 원)로 집계
 - 동년 수출액 2위를 차지한 팽이버섯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22.3% 감소한 1,440만 2,000달러(한화 약 187억 8,020만 원)로 집계
 - 이는 주요 팽이버섯 수출국인 미국에서 한국산 팽이버섯을 섭취하고 리스테리아 균 식중독에 걸리는 사례가 발생하며, 한국산 팽이버섯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것이 원인

〈표 I -4〉 대한민국 주요 품목별 버섯 수출현황(2017~2021)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총계	42,059	49,287	53,836	48,491	44,515	100.0	△8.2	1.4
1 새송이버섯	19,246	23,497	26,297	25,867	26,501	59.5	2.5	8.3
2 팽이버섯	18,771	21,479	22,731	18,525	14,402	32.4	△22.3	△6.4
3 기타버섯	2,908	3,159	3,361	2,752	2,172	4.9	△21.1	△7.0
4 기타 느타리버섯	1,125	1,136	1,339	1,343	1,435	3.2	6.8	6.3
5 양송이 버섯	8	12	56	3	4	0.0	46.7	△14.9
6 영지버섯	0	4	53	1	0	0.0	△50.0	0.0

*주1: HS Code: 0709.51-7000(그 밖의 신선·냉장 채소-양송이버섯), 0709.54-0000(그 밖의 신선·냉장 채소-표고버섯), 0709.59(그 밖의 신선·냉장 채소-기타버섯(영지·느타리·큰느타리·기타·팽이버섯 포함))을 검색

*주2: HS Code: 0709.59-4010(그 밖의 신선·냉장 채소-큰느타리버섯), 0709.59-5000(그 밖의 신선·냉장 채소-팽이버섯), 0709.59-9000(그 밖의 신선·냉장 채소-기타), 0709.59-4090(그 밖의 신선·냉장 채소-느타리버섯 기타), 0709.51-7000(그 밖의 신선·냉장 채소-양송이버섯), 0709.59-3000(그 밖의 신선·냉장 채소-영지버섯) 기준으로 집계

*출처: KATI (검색일: 2022.12.09.)

□ 주요 수출국은 미국(22.1%), 네덜란드(19.0%), 호주(18.0%) 순으로, 수출 상위 3개국의 비중이 전체의 59.1%를 차지

- 수출액 비중 1위를 차지한 對미국 버섯 수출액은 전년 대비 18.1% 감소한 984만 4,000달러(한화 약 128억 3,657만 원)로 집계
 - 미국 FDA는 일부 업체의 팡이버섯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발표했으며, 2020년 10월 ‘수입 특산 버섯 예방 전략(Imported Specialty Mushroom Prevention Strategy)’를 발표, 버섯 수입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수출액이 감소함
- 동년 프랑스로의 버섯 수출은 전년 대비 6,225.9% 급증한 325만 2,000달러(한화 약 42억 3,638만 원)로 집계
 - 프랑스에서 큰느타리버섯 신규 수입처를 발굴하며 수출액 급증을 견인함

〈표 I -5〉 대한민국 버섯 수출현황(2017~2021)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 세계	42,059	49,287	53,836	48,491	44,515	100.0	△8.2	1.4
1 미국	12,268	13,627	15,365	12,014	9,844	22.1	△18.1	△5.4
2 네덜란드	8,819	11,079	11,783	9,656	8,447	19.0	△12.5	△1.1
3 호주	6,402	7,355	8,056	7,425	8,018	18.0	8.0	5.8
4 캐나다	5,776	6,365	6,816	6,440	4,210	9.5	△34.6	△7.6
5 프랑스	356	120	228	51	3,252	7.3	6,225.9	73.9
6 홍콩	1,620	1,505	1,457	2,678	2,845	6.4	6.2	15.1
7 베트남	1,523	1,826	2,208	2,673	2,720	6.1	1.8	15.6
8 싱가포르	186	474	1,090	1,182	923	2.1	△22.0	49.3
9 말레이시아	925	1,420	1,260	1,102	910	2.0	△17.5	△0.4
10 독일	668	1,044	716	578	898	2.0	55.4	7.7

*주1: HS Code: 0709.51-7000(그 밖의 신선·냉장 채소-양송이버섯), 0709.54-0000(그 밖의 신선·냉장 채소-표고버섯), 0709.59(그 밖의 신선·냉장 채소-기타버섯(영지·느타리·큰느타리·기타·팽이버섯 포함)) 을 검색

*주2: HS Code: 0709.59-4010(그 밖의 신선·냉장 채소-큰느타리버섯), 0709.59-5000(그 밖의 신선·냉장 채소-팽이버섯), 0709.59-9000(그 밖의 신선·냉장 채소-기타), 0709.59-4090(그 밖의 신선·냉장 채소-느타리버섯 기타), 0709.51-7000(그 밖의 신선·냉장 채소-양송이버섯), 0709.59-3000(그 밖의 신선·냉장 채소-영지버섯) 기준으로 집계

*출처: KATI (검색일: 2022.12.09.)

II. 미국 버섯 시장현황

1. 생산 및 수입현황

가. 생산현황

□ 2021년 미국의 버섯 생산량은 전년 대비 7.3% 감소한 31만 8,599톤으로 집계

- 생산액의 경우, 전년 대비 4.3% 감소한 10억 1,828만 1,000달러(한화 약 1조 3,265억 원)로 집계
- 미국 버섯연구소(American Mushroom Institute)에 따르면, 생산량 감소는 버섯 재배·수확에 필요한 노동력 부족 현상과, 이를 보완할 외국인 노동자 충원에 차질이 생기며 빚어진 현상
 - 2020년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신청할 수 있는 농장노동자 현대화법(Farm Worker Modernization Act)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인력 충원에 부족함을 겪음

〈표 II -1〉 미국 버섯 생산현황(2017~2021)

(단위: 천 달러, 톤,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생산액	1,233,582	1,114,710	1,153,296	1,063,849	1,018,281	△4.3	△4.7
생산량	416,050	377,263	370,297	343,817	318,599	△7.3	△6.5

*출처: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s, Statistics and Market Information System(usda.library.cornell.edu)

나. 수입현황

□ 2021년 미국의 버섯 수입액은 전년 대비 17.6% 증가한 4억 981만 5,000달러(한화 약 원)로 집계

- 품목별 수입액은 양송이버섯(85.0%), 기타버섯(15.0%) 순
- 동년 양송이버섯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13.7% 증가한 3억 4,820만 7,000달러(한화 약 5,339억 4,796만 원) 수준
- 동년 기타버섯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46.6% 증가한 6,160만 8,000달러(한화 약 802억 6,290만 원)로 집계

〈표 II -3〉 미국 품목별 버섯 수입현황(2017~2021)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합계	231,666	277,210	318,478	348,363	409,815	100.0	17.6	15.3
양송이버섯	186,579	227,559	265,637	306,350	348,207	85.0	13.7	16.9
기타버섯	45,087	49,651	52,841	42,013	61,608	15.0	46.6	8.1

*주1: HS Code: 0709.59(그 밖의 신선·냉장 채소-기타버섯), 0709.51-0100(그 밖의 신선·냉장 채소-양송이버섯) 기준으로 집계

*주2: HS Code: 0709.54-0000(그 밖의 신선·냉장 채소-표고버섯), 0709.55-0000(그 밖의 신선·냉장 채소-송이버섯)은 수입량 없음

*출처: ITC Trademap (검색일: 2022.12.12.)

□ 주요 버섯 수입국은 캐나다(72.7%), 이탈리아(4.4%), 대한민국(3.0%) 순

- 동년 수입액 1위국인 캐나다로부터의 버섯 수입액은 전년 대비 14.1% 증가한 2억 9,806만 6,000달러(한화 약 3,883억 5,019만 원)로 집계
 - 이는 미국의 농장노동자 현대화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며 버섯 생산자가 노동력 충원에 차질을 겪으며, 노동 인력 조달이 원활한 캐나다로 이주해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액이 증가하게 됨
- 동년 수입액 2위국인 이탈리아로부터의 버섯 수입액은 전년 대비 110.7% 증가한 1,813만 달러(한화 약 236억 2,157만 원)로 집계
 -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건강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미국인의 47%가 더 많은

식물성 식품을 소비함에 따라, 버섯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입액 급증을 견인

- 동년 수입액 3위국인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버섯 수입액은 전년 대비 11.6% 감소한 1,238만 7,000달러(한화 약 161억 3,530만 원)로 집계
 - 2021년 미국 FDA는 한국산 팡이버섯에 대해 전국 수입경보를 발령, 수출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액이 감소함

〈표 II -2〉 미국 버섯 수입현황(2017~2021)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 세계	231,666	277,210	318,478	348,363	409,815	100.0	17.6	15.3
1 캐나다	156,123	197,132	229,261	261,134	298,066	72.7	14.1	17.5
2 이탈리아	12,411	12,459	13,237	8,604	18,130	4.4	110.7	9.9
3 대한민국	12,295	13,726	16,406	14,010	12,387	3.0	△11.6	0.2
4 중국	10,598	10,582	9,552	7,626	10,164	2.5	33.3	△1.0
5 스페인	3,761	3,801	4,048	3,148	4,332	1.1	37.6	3.6
6 호주	1,226	1,233	1,160	339	1,521	0.4	348.7	5.5
7 일본	10	0	30	438	1,398	0.3	219.2	243.9
8 프랑스	2,681	2,554	2,204	1,591	1,279	0.3	△19.6	△16.9
9 크로아티아	13	351	218	153	900	0.2	488.2	188.5
10 불가리아	401	407	387	184	493	0.1	167.9	5.3

*주1: HS Code: 0709.59(그 밖의 신선·냉장 채소-기타버섯), 0709.51-0100(그 밖의 신선·냉장 채소-양송이버섯) 기준으로 집계

*주2: HS Code: 0709.54-0000(그 밖의 신선·냉장 채소-표고버섯), 0709.55-000(그 밖의 신선·냉장 채소-송이버섯)은 수입량 없음

*출처: ITC Trademap (검색일: 2022.12.12.)

2. 소비현황

□ 한국산 버섯의 경우 주로 팽이버섯과 새송이버섯이 판매되고 있으며, 한국산 팽이버섯과 새송이버섯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인지도는 평이한 수준

- 미국 소비자의 팽이버섯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은 수준
 - 미국 소비자는 주로 양송이버섯을 섭취하며, 팽이버섯은 이국적인 식재료로 평이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동아시아 식문화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음
 - 한국·중국·일본의 요리법을 소개하고 있는 현지 사이트에서 팽이버섯에 대한 소개 게시글을 주로 찾아볼 수 있음
 - 또한, 버섯이 식물성 식단의 식재료로 부상함에 따라, 채식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음
- 새송이버섯의 경우 미국 식품 인플루언서의 조리·섭취 영상을 다수 찾아볼 수 있으나, 인지도는 역시 팽이버섯과 비슷한 수준
 - 현지 매체에서는 새송이버섯을 고기와 식감이 비슷해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채식 식재료로 소개하는 등 비건 소비자를 중심으로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팽이버섯과 비슷한 인지도를 보유

□ 팽이버섯은 샐러드, 구이, 조림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하며, 주로 생식으로 샐러드에 곁들여 섭취함

- 미국의 레시피 사이트인 Yummly는 호박 팽이버섯 샐러드, 오이 팽이버섯 샐러드 등 팽이버섯을 첨가한 다양한 샐러드 레시피를 소개
- 또한, 동아시아의 식문화에 관심이 있는 미국 소비자가 된장국, 두부조림 등을 조리할 때 팽이버섯을 첨가해 섭취하기도 함
 - 현지 레시피 사이트에서는 팽이버섯을 첨가해 조리할 경우 쫄깃한 식감을 더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음

<그림 II-1> 미국의 팡이버섯 소비형태



팡이버섯 샐러드



팡이버섯을 첨가한 두부조림

*출처:greenbowl2soul.com, carvingajourney.com, 유튜브 ‘ChefDave VeganJourney’ 유튜브 채널

□ 한국산 팡이버섯은 미국의 DWPE(무검사 억류제도, 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 대상으로,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존재하는 실정

- 2020년 3월, 미국 언론에서 한국산 팡이버섯에서 리스테리아 식중독균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한 뒤, 2022년 7월, 한국산 팡이버섯에 대해 전국 수입경보를 발령함
 - 한국산 팡이버섯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됨에 따라, 2022년 미국 FDA가 한국산 팡이버섯 제품에 대해 물리적인 검사 없이 무조건적인 억류를 동반한 전국 수입 경보(Country-wide import alert)를 발령함
 - 이에 따라, 한국산 팡이버섯은 FDA에 안전성을 입증한 뒤 Green list에 등재된 업체에 한해 수출이 가능해짐
- 미국 식품의약국은 2022년 9월, 수입 팡이버섯과 관련된 리스테리아 및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함
 - 수입항에서 전략적이고 표적화된 샘플링 검사 증가 등의 조치를 통해 버섯 생산자가 미국으로 수출할 버섯을 생산할 때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 있음

□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고추장 조림 팡이버섯 섭취 영상이 인기를 끌며 다수의 레시피 영상이 게시됨

- 210만 구독자를 보유한 미국의 식품 인플루언서 ‘chefchrischo’ 는 고추장 소스에 졸인 팡이버섯 레시피 영상과 이를 섭취하는 영상을 게시, 2022년 12월 기준 30만 조회수를 기록함
 - 영상을 시청한 미국 소비자는 팡이버섯의 식감에 대해 궁금해하는 반응을 보임
 - 또한, 해당 영상을 시청한 뒤 직접 조리해본 소비자는 팡이버섯의 식감과 고추장 소스의 맛에 대해 만족하는 반응을 보임

<그림 II -2> 미국 식품 인플루언서가 게시한 팡이버섯 레시피 영상

	<p> thatoneguy89 do they come out like noodle texture? 9-14 회신</p> <hr/> <p>팡이버섯은 국수 같은 식감인가요?</p> <hr/> <p> Janni/Jan Great! I just bought a bunch and needed more recipes for nature's noodle! 🍜😊 9-18 회신</p> <hr/> <p>맛있어요! 팡이버섯을 많이 구매해서, 이 자연 국수의 더 많은 레시피가 필요합니다</p>
<p>팡이버섯 레시피 소개 영상</p>	<p>댓글 내용(원문/번역)</p>

*출처: tiktok.com/@chefchrischo

3. 유통현황

□ 미국에서 유통되는 자국산 버섯 제품은 주로 양송이버섯으로, 플라스틱·종이 용기에 담겨 랩으로 포장한 형태의 제품이 주로 유통 중

- 양송이버섯 외에도 느타리버섯, 표고버섯이 판매되고 있으며, 양송이·느타리·표고버섯은 혼합한 버섯 믹스 제품 역시 판매 중
 - 주로 원물 그대로 판매되거나, 슬라이스해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된 제품이 판매되고 있음

〈표Ⅲ-4〉 미국에서 유통 중인 자국산 버섯 제품

사진			
제품명	White Mushrooms (양송이버섯)	Sliced White Mushrooms (슬라이스 양송이버섯)	Blend Mushrooms (버섯 믹스)
원산지	미국	미국	미국
제품형태	신선 버섯(양송이버섯)	신선 버섯(양송이버섯)	버섯 믹스 (양송이·느타리·표고버섯)
가격	1.52USD / 227g (한화 약 1,980.71원)	4.99USD / 454g (한화 약 6,502.47원)	3.99USD / 113g (한화 약 5,199.37원)

* 출처: heb.com ,hy-vee.com, kroger.com

□ 미국에서 유통 중인 수입산 버섯은 캐나다산·한국산 버섯이 있으며,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양송이버섯, 표고버섯 등 다양한 버섯이 유통 중

- 미국의 주요 버섯 수입국인 캐나다산 버섯은 양송이버섯·표고버섯·새송이버섯·팽이버섯 등이 유통되고 있음

- 캐나다산 버섯은 주로 종이·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랩으로 포장해 판매되고 있음
 - 주로 원물 그대로 판매되거나, 슬라이스해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된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여러 신선 버섯을 혼합해 판매하는 버섯 믹스 제품도 판매되고 있음
 - USDA 유기농 인증을 취득한 제품이 다수 확인됨
- 미국에서 유통 중인 한국산 버섯은 주로 새송이버섯이며, 팽이버섯·느타리버섯 역시 판매되고 있음
 - 한국산 버섯은 비닐 포장되어 판매되거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비닐로 포장된 형태로 판매되고 있음
 - 새송이버섯의 경우 판매처에서 쫄깃하고 고기와 같은 식감을 가져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식재료임을 홍보하고 있음

〈표Ⅲ-4〉 미국에서 유통 중인 수입산 버섯 제품

사진			
제품명	Organic Biologique Fresh Mushrooms (신선한 유기농 버섯)	Enoki mushroom (팽이버섯)	Korean King Oyster Mushroom (한국산 유기농 새송이버섯)
원산지	캐나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제품형태	버섯 믹스 (양송이·느타리·팽이버섯)	신선 버섯(팽이버섯)	신선 버섯(새송이버섯)
가격	6.49USD / 207g (한화 약 8,457.12원)	4.29USD / 150g (한화 약 5,590.30원)	7.49USD / 300g (한화 약 9,760.22원)

* 출처: wegmans.com, rocketcart.com

Ⅲ. 호주 버섯 시장현황

1. 생산 및 수입현황

가. 생산현황

- 2020년 기준 호주의 버섯 생산량은 전년 대비 13.2% 감소한 4만 2,526톤으로 집계
 - 2017년 이후 4년간 연평균 6.0% 감소하며, 호주의 버섯 생산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호주의 버섯 생산량 감소세는 노동 인력 충원에 차질이 생기며 생산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Ⅲ-1〉 호주 버섯 생산현황(2017~2020)

구분	2017	2018	2019	2020	(단위: 톤, %)	
					전년비 (19/20)	연평균 (17/20)
생산량	51,222	48,680	48,974	42,526	△13.2	△6.0

*주: 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최신자료(2020)로 작성

*출처: 호주 통계청(ABS)

나. 수입현황

- 2021년 호주의 버섯 수입액은 전년 대비 10.6% 증가한 1,048만 7,000달러(한화 약 136억 5,931만 원)로 집계
 - 품목별 수입액은 기타버섯(99.8%), 양송이버섯(0.2%) 순
 - 동년 기타버섯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10.5% 증가한 1,047만 달러(한화 약 136억 3,822만 원) 수준
 - 동년 양송이버섯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183.3% 증가한 1만 7,000달러(한화 약 2,214만 원) 수준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

〈표Ⅲ-2〉 호주 품목별 버섯 수입현황(2017~2021)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합계	8,250	9,195	9,690	9,483	10,487	100.0	10.6	6.2
기타버섯	8,225	9,135	9,680	9,477	10,470	99.8	10.5	6.2
양송이버섯	25	60	10	6	17	0.2	183.3	△9.2

*주1: HS Code: 0709.59(그 밖의 신선·냉장 채소-기타버섯), 0709.51-0060(그 밖의 신선·냉장 채소-양송이버섯) 기준으로 집계

*주2: HS Code: 0709.54-0000(그 밖의 신선·냉장 채소-표고버섯), 0709.55-000(그 밖의 신선·냉장 채소-송이버섯)은 수입량 없음

*출처: ITC Trademap (검색일: 2022.12.12.)

□ 주요 버섯 수입국은 대한민국(78.8%), 중국(17.1%) 순

- 동년 수입액 1위국인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버섯 수입액은 전년 대비 9.7% 증가한 826만 6,000달러(한화 약 107억 6,977만 원)로 집계
- 동년 수입액 2위국인 중국으로부터의 버섯 수입액은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79만 6,000달러(한화 약 23억 4,000만 원)로 집계
- 동년 수입액 3위국인 스페인으로부터의 버섯 수입액은 전년 대비 272.7% 증가한 16만 4,000달러(한화 약 2억 1,362만 원)로 집계

〈표Ⅲ〉 호주 버섯 수입현황(2017~2021)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 세계	8,250	9,195	9,690	9,483	10,487	100.0	10.6	6.2
1 대한민국	6,114	7,055	7,601	7,532	8,266	78.8	9.7	7.8
2 중국	1,771	1,851	1,804	1,577	1,796	17.1	13.9	0.4
3 스페인	115	73	123	44	164	1.6	272.7	9.3
4 크로아티아	0	30	2	21	126	1.2	500.0	61.3
5 아티리아	60	57	19	216	124	1.2	△42.6	19.9
6 프랑스	16	23	18	12	5	0.0	△58.3	△25.2
7 네덜란드	0	0	0	0	4	0.0	N/A	N/A
8 일본	0	0	1	3	1	0.0	△66.7	N/A
9 벨라루스	0	0	2	0	0	0.0	N/A	N/A
10 캐나다	0	0	2	0	0	0.0	N/A	N/A

*주1: HS Code: 0709.59(그 밖의 신선·냉장 채소-기타버섯), 0709.51-0100(그 밖의 신선·냉장 채소-양송이버섯) 기준으로 집계

*주2: HS Code: 0709.54-0000(그 밖의 신선·냉장 채소-표고버섯), 0709.55-000(그 밖의 신선·냉장 채소-송이버섯)은 수입량 없음

*주3: 크로아티아 연평균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값으로 산출함

*출처: ITC Trademap (검색일: 2022.12.12.)

2. 소비현황

- 한국산 버섯의 경우 주로 새송이버섯과 팽이버섯이 판매되고 있으며, 새송이버섯과 팽이버섯은 이국적인 식재료로 인식되며, 대중적인 식재료로 사용되지 않는 실정
 - 새송이버섯에 대한 호주 소비자의 인지도는 비건 식단을 실천하는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형성됨
 - 새송이버섯 특유의 고기와 비슷한 식감으로 인해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으로 채식 식단을 소개하는 호주 매체의 기사에서 언급되기도 함
 - 새송이버섯에 대한 인지도가 점점 증가하면서, 시어링³⁾·구이·생식으로 섭취하는 다양한 레시피가 현지 매체에 소개되기도 함
 - 인지도 증가의 요인으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호주 소비자가 해외 버섯 요리를 접하게 됨에 따라, 이국적인 버섯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을 꼽을 수 있음
 - 팽이버섯은 동아시아 식문화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음
 - 또한, 채식을 실천하는 소비자 역시 팽이버섯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팽이버섯은 호주 매체에서 동아시아 요리에 자주 사용되는 식재료로 소개되며, 레시피 역시 주로 한식·일식·중식 요리에 첨가된 형태로 소개되고 있음
 - 호주의 식품 매체인 Harvest to Home에 따르면 버섯의 주요 소비층은 고령층으로, 2021년 6월부터 1년간 전체 판매량의 30.4%가 고령층에 의해 소비되고 있음
- 호주의 버섯 식문화는 양송이버섯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피자, 파스타 요리에 등에 곁들여 섭취하며, 갈아서 수프 등으로 섭취하기도 함

3) 강력한 화력으로 먼저 태울 듯이 겉면을 튀기거나 구워, 겉면에 크러스트가 생기게 하는 조리 기법

- 새송이버섯·팽이버섯의 경우 이국적인 식재료로, 한·중·일식 요리를 조리할 때 첨가하거나, 소셜 미디어에서 유행하는 레시피를 참고해 조리하는 경향이 나타남
 - 새송이버섯의 경우 주로 매운 양념, 치즈 양념 등 양념과 함께 굽거나 졸여서 섭취함
 - 팽이버섯은 샐러드에 첨가해 섭취하거나, 볶음·졸임과 같은 방식으로 조리해 섭취함

〈그림Ⅲ-1〉 호주의 버섯 소비형태



*출처: australianmushroomgrowers.com.au, agfg.com.au, sbs.com.au

□ 호주 소비자가 식물성 식단에 주목함에 따라, 버섯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속가능성,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버섯이 호주 소비자의 관심을 끌
 - 지속가능한 식단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며 탄소발자국이 낮은 식물성 식단이 부상하며, 버섯이 주요 식재료로 소비자의 주목을 받음
 - 이에 따라, 버섯이 호주 식품 매체에 의해 2022년 식품 트렌드로 선정되기도 함
- 호주 매체에서 버섯의 건강상의 이점을 소개하며, 버섯의 효능에 대한 호주 소비자의 인식이 제고됨
 - 버섯은 낮은 열량을 보유하고 있고, 섭취 시 면역력을 강화하고 섬유질·단백질·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음

□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버섯 요리가 소개되며, 이국적인 버섯 요리에 대한 호주 소비자의 인지도가 상승함

- 16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edenvonweiss’ 가 게시한 팡이버섯 섭취 영상은 190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버섯 레시피를 접함
- 해당 영상을 시청하고 조리하기 위해 구매처를 문의하는 댓글이 확인되는 등 호주 소비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그림 II -2> 호주 식품 인플루언서가 게시한 버섯 레시피 영상



팡이버섯 레시피 소개 영상



새송이버섯 레시피 소개 영상

*출처: [tiktok.com/@edenvonweiss](https://www.tiktok.com/@edenvonweiss), [tiktok.com/@foodiechina888](https://www.tiktok.com/@foodiechina888)

3. 유통현황

- 호주에서 유통되는 자국산 버섯 제품은 주로 양송이버섯으로, 플라스틱·종이 용기에 담겨 랩으로 포장한 형태의 제품이 주로 유통 중
 - 양송이버섯 외에도 표고버섯·팽이버섯·새송이버섯 등이 판매되고 있으며, 양송이·큰느타리·표고버섯은 혼합한 버섯 믹스 제품 역시 판매 중
 - 주로 원물 그대로 판매되거나, 슬라이스된 형태로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된 제품이 판매되고 있음
 - 건조한 표고버섯 제품도 유통되고 있으며, 일반 버섯에 비해 높은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음(3.50호주달러(한화 약 3,078원)/20g)⁴⁾
 - 팽이버섯과 새송이버섯에는 주로 ‘이국적인(exotic)’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제품 단가가 일반 양송이버섯에 비해 높게 형성되고 있음

<표Ⅲ-1> 호주에서 유통 중인 버섯 제품

사진			
제품명	Cup Mushrooms Prepacked (포장된 양송이버섯)	Sliced Mushrooms (슬라이스 양송이버섯)	Enoki Mushrooms Exotic (이국적인 팽이버섯)
원산지	호주	호주	호주
제품형태	신선 버섯(양송이버섯)	신선 버섯(양송이버섯)	신선 버섯(팽이버섯)
가격	7.50AUD / 500g (한화 약 6,596.85원)	7.50AUD / 500g (한화 약 6,596.85원)	6.90AUD / 100g (한화 약 6,070.48원)

* 출처: coles.com.au

4) 2022년 12월 13일자 환율 적용(1AUD = 879.58KRW))

□ 호주에서 유통 중인 수입산 버섯은 주로 한국산이 판매되고, 중국산 버섯 역시 찾아볼 수 있음

- 호주의 주요 버섯 수입국인 한국산·중국산 버섯이 유통되고 있음
- 한국산·중국산 버섯은 주로 팽이버섯·새송이버섯이 판매 중이며, 현지 슈퍼마켓보다 아시안 슈퍼마켓에서 주로 유통되고 있음
 - 한국산 새송이버섯의 경우 별도의 용기 없이 비닐로 포장하거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랩으로 포장한 제품이 주로 판매 중
 - 한국산의 경우 소형 새송이버섯이 유통되기도 함
 - 중국산 팽이버섯의 경우 별도 용기 없이 비닐로 포장한 제품이 주로 판매되고 있음

<표Ⅲ-2> 호주에서 유통 중인 한국산 버섯 제품

사진			
제품명	Mushroom King Oyster (새송이버섯)	미니 새송이버섯	Mushroom Enoki (팽이버섯)
원산지	대한민국	대한민국	중국
제품형태	신선 버섯(새송이버섯)	신선 버섯(새송이버섯)	신선 버섯(팽이버섯)
가격	5.5AUD / 400g (한화 약 4,838.79원)	4.75AUD / 300g (한화 약 4,178.96원)	2.80AUD / 300g (한화 약 2,464.14원)

* 출처: .asiangroceronline.com.au, metroimall.com

IV. 요약

1. 대한민국 생산·수출현황

□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버섯 생산량은 전년 대비 5.0% 감소한 15만 839톤으로 집계

- 주요 산지는 경상북도(25.4%), 경기도(23.4%), 충청남도(11.8%) 순
- 품목별 생산 비중은 큰느타리버섯(33.1%), 느타리버섯(31.2%), 팽이버섯(17.9%) 순

□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버섯 수출액은 전년 대비 8.2% 감소한 4,451만 5,000달러(한화 약 580억 304만 원)

- 주요 수출국은 미국(22.1%), 네덜란드(19.0%), 호주(18.0%) 순
 - 비중 1위를 차지한 미국으로의 버섯 수출액은 전년 대비 18.1% 감소한 984만 4,000달러(한화 약 128억 2,673만 원)로 집계
 - 비중 3위를 차지한 호주로의 버섯 수출액은 전년 대비 8.0% 증가한 801만 8,000달러(한화 약 104억 4,344만 원)로 집계
- 주요 수출품목은 새송이버섯(59.5%), 팽이버섯(32.4%), 순
 - 새송이버섯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2,650만 1,000달러(한화 약 345억 1,755만 원)가 수출
 - 팽이버섯은 미국에서 식중독 중독 사례가 발생하며 집중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며 전년 대비 22.3% 감소한 1,440만 2,000달러(한화 약 187억 5,860만 원)가 수출됨

2. 조사국별 비교

〈표Ⅳ-1〉 조사국별 시장현황 비교

구분	미국	호주
생산량	- 31만 8,599톤(전년 대비 7.3% 감소)	- 4만 2,526톤(전년 대비 13.2% 감소)
수입현황	- 전년 대비 17.6% 증가한 4억 981만 5,000 달러(한화 약 5,337억 8,403만 원) - 주요 품목: 양송이버섯(85.0%), 기타버섯(15.0%) - 주요 수입국: 캐나다(72.7%), 이탈리아(4.4%), 대한민국(3.0%)	- 전년 대비 10.6% 증가한 1,048만 7,000달러 (한화 약 136억 5,931만 원) - 주요 품목: 기타버섯(99.8%), 양송이버섯(0.2%) - 주요 수입국: 대한민국(78.8%), 중국(17.1%)
인식	- 팡이버섯: 동아시아 식문화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인지도 형성 - 새송이버섯: 육류 대체식품으로 부상, 채식주의자 소비자를 중심으로 인지도 형성	- 팡이버섯: 이국적인 식재료로, 동아시아 식문화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와 채식을 실천하는 소비자에게 인지도 형성 - 새송이버섯: 이국적인 식재료로, 비건 식단을 실천하는 소비자층에게 인기
소비형태	- 팡이버섯의 경우 생식으로 샐러드, 구이, 조림과 같은 방식으로 소비	- 양송이버섯 중심의 식문화를 보유, 주로 피자·파스타 등의 요리에 곁들여 섭취함 - 새송이·팡이버섯은 동아시아 요리의 재료로 활용하거나, 소셜 미디어에서 유행하는 레시피를 참고함
관련 이슈	- 한국산 팡이버섯 섭취 후 리스테리아 식중독균 감염으로 한국산 팡이버섯에 대해 전국 수입 경보(Country-wide import alert) 발령	- 지속가능성과 건강에 대한 호주 소비자의 인식이 제고되며 육류의 대체재로써, 버섯이 주는 건강상의 이점으로 현지 매체에 의해 버섯이 2022년 식품 트렌드로 선정
유통제품	- 자국산: 양송이버섯 - 한국산: 새송이·팡이·느타리버섯 - 캐나다산: 양송이·표고·새송이·팡이버섯	- 자국산: 양송이·표고·팡이·새송이버섯 - 한국산: 새송이·팡이버섯 - 중국산: 팡이버섯
포장 형태	- 자국산: 플라스틱·종이 용기에 담겨 랩으로 포장한 제품 - 한국산: 용기 없이 비닐 포장,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비닐 포장한 제품 - 캐나다산: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랩으로 포장한 제품	- 자국산: 플라스틱·종이 용기에 담겨 랩으로 포장한 제품 - 한국산: 용기 없이 비닐 포장 및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비닐 포장한 제품 - 중국산: 용기 없이 비닐 포장한 제품

※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1	유엔식량농업기구 (fao.org)
2	통계청(kosis.kr)
3	농식품수출정보(kati.net)
4	ITC Trademap(trademap.org)
5	「2020 Industry Report:Mushroom」,(tridge, 2021)
6	“양송이, 국내 육성 품종 보급으로 경쟁력 높인다” (FOODICON, 2022.03.02)
7	“충청권 2021년 연평균 기온 역대 최고” (중부매일, 2022.01.23.)
8	“4 deaths, 30 hospitalizations linked to listeria outbreak in recalled enoki mushrooms” (CNN, 2020.03.11.)
9	“미국, 한국산 팽이버섯 수입 시 물리적 검사 없이 억류 가능” (KATI 농식품수출정보 해외시장동향, 2022.08.09.)
10	「2021년 농림수산물 수출동향 보고서(외부용)」 (KATI 농식품수출정보 해외시장동향)
11	미국 농무부 통계사이트(usda.library.cornell.edu)
12	미국 버섯 생산자 사이트(americanmushroom.org)
13	“WHY THE U.S. MUSHROOM BUSINESS IS MIGRATING TO CANADA” (American Mushroom Institute, 2020.07.23.)
14	“Coltivare e vendere funghi negli Stati Uniti(미국에서 버섯 재배 및 판매)” (Export USA, 2021.11.23.)
15	“Packages of enoki mushrooms recalled after listeria found in Michigan sample” (Detroit Free Press, 2022.11.21.)
16	미국 레시피 사이트(carvingjourney.com)
17	“팽이버섯이 美 수입통관서 차단된 이유” (중부일보, 2022.09.29.)
18	“Summary of FDA’ s Strategy to Help Prevent Listeriosis and Salmonellosis Outbreaks Associated with Imported Enoki and Imported Wood Ear Mushrooms” , (FDA, 2022.09.26.)
19	호주 버섯 생산자 협회 사이트(australianmushroomgrowers.com.au/)
20	호주 레시피 사이트(thefoodietakesflight.com)
21	호주 식품 매체(goodfood.com.au)
22	호주 식품 매체(masterclass.com)
23	호주 버섯 정보 사이트(harvesttohome.net.au)
24	호주 레시피 사이트(allrecipes.com)
25	호주 레시피 사이트(thewoksoflife.com)
26	“MUSHROOMS CONTINUE TO TREND AS INGREDIENT OF THE YEAR” (AGRICULTURE, 2022)
27	미국 레시피 사이트(greenbowl2soul.com)
28	미국 레시피 사이트(carvingajourney.com,)
29	유튜버 ‘ChefDave VeganJourney’ 유튜브 채널
30	chefchrischo TIKTOK 채널
31	미국 온라인 유통채널(heb.com)
32	미국 온라인 유통채널(hy-vee.com)
33	미국 온라인 유통채널(kroger.com)

34	미국 온라인 유통채널(wegmans.com)
35	미국 온라인 유통채널(rocketcart.com)
36	미국 온라인 유통채널(rocketcart.com)
37	호주 온라인 유통채널(coles.com.au)
38	호주 온라인 유통채널(asiangroceronline.com.au)
39	호주 온라인 유통채널(metroimall.com)
40	edenvonweiss TIKTOK 채널
41	foodiechina888 TIKTOK 채널